

# 쑥스러운 올스타 전상현 “플타임으로 보답하겠다”



### 개막 후 위력투 선보이며 ‘막강 불펜’ 스타트 기록 있는 성적에 위축...아프지 않고 끝까지

KIA 타이거즈의 투수 전상현이 ‘부끄러움’과 ‘자부심’ 두 가지 상반된 감정으로 올스타전을 기다린다.

전상현은 지난 16일 KBO가 팬투표(70%), 선수단투표(30%)를 합산해 발표한 올스타전 ‘베스트12’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팬들에게 125만4528표를 받은 전상현은 선수단투표에서도 111표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나능 올스타 중간투수 부문에서 첫 베스트 12 영예를 안았다.

전상현은 지난 2022년에도 118만6887표를 획득해 팬투표 1위를 차지했지만, 선수단 투표에서 LG 정우영에게 역전을 허용했다.

당시 “투표 많이 해주셔서 진짜 감동했다”며 베스트12 불발 아쉬움을 달랬던 전상현이지만 결과를 얻은 이번에는 오히려 표정이 밝지 못했다.

전상현은 “좋은 성적을 거두고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쉽다. 잘하고 있지 않다”며 “후보에 들었을 때 많이 부끄럽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 있었다. 솔직히 후보에 들었을 때 성적이 엄청 안 좋

았다. 그때 내가 후보에 들어가는 게 맞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했다.

‘올스타’에 맞는 성적을 내지 못했다는 게 ‘부끄러움’의 이유다.

전상현은 올 시즌 18일 경기 전까지 33경기에 나와 30.1이닝을 소화하면서 24.45의 평균자책점과 2승 3패 2세이브 11홀드를 기록했다.

6월 7경기에서 ‘0’의 행진을 하고 있는 전상현은 개막 후 위력적인 공을 뿌리면서 ‘막강 불펜’의 중심 역할을 했다. 하지만 4월 6일 삼성전에서 0.2이닝 3실점을 기록하는 등 기록 많은 봄날을 보냈다.

전상현은 “올해는 비시즌 때부터 스프링캠프, 시범경기 동안 어느 때보다 많이 준비했다. 처음에는 스타트가 좋아서 준비를 잘 했구나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결과가 계속 안 좋았다. 준비한 것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고 후회도 많이 들고 힘들었던 것 같다”며 “말도 안 되게 성적이 안 좋아져서 많이 힘들었다. 성적이 떨어졌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다. 계속 결과가 안 좋다 보니까

마운드에 올라갔는데 나도 모르게 위축이 됐다. 그래서 계속 그랬던 것 같다”고 부진의 순간을 이야기했다.

그는 이어 “안 아프고 올해는 플시즌을 소화하는 느낌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면서 그래도 나아졌던 것 같다”며 “불펜에서 나부터 많이 흔들렸던 것 같다. 코치님들도 항상 말씀 많이 하시는 게 내가 중심 잘 잡아야 된다는 것이다. 생각들을 버리고 내려놓고 했던 것 같다”고 평정심을 찾는 과정을 이야기했다.

무엇보다 아프지 않고 마운드를 지키고 있다는 게 의미 있다.

전상현은 “꾸준하게 하는 게 제일 큰데 사실 그게 제일 힘들다. 또 안 아파야 되는 게 제일 크다. 아프지 않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관리도 잘해주시고 제 스스로도 관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부끄러움’으로 베스트12 소감을 밝힌 전상현은 ‘자부심’도 말했다.

전상현은 “뺏아주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팬분들, 선수단에서 뺏아주는 거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해야 할 것 같다.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뺏아주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며 “다음에 뺏이면 조금 더 당당하게 좋은 성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의 전상현이 팬 투표에 이어 선수단 투표에서도 1위를 차지하면서 처음 올스타전 베스트12에 선정됐다. <KIA 타이거즈 제공>



## KIA 이의리, 완벽하게 돌아오리

### 팔꿈치 수술 위해 일본 출국

KIA 타이거즈의 좌완 이의리(사진)가 팔꿈치 수술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KIA는 “이의리 선수가 18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20일에 요코하마 미나미 병원에서 팔꿈치 내측 인대 재건술과 뼈조각 제거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의리는 수술 후 일본 이치마 병원에서 재활을 한 뒤 7월 7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의리는 지난 4월 10일 LG 트윈스와 홈경기에서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면서 자진 강판된 뒤 5월 29일 NC 다이노스와 원정경기를 통해 부상 복귀전을 치렀다.

하지만 이후 5월 31일과 6월 1일 왼쪽 팔꿈치 정밀 검진을 받았고, 팔꿈치 인대 부분 손상 진단을 받았다.

‘재활’과 ‘수술’을 놓고 고민했던 이의리는 고질적인 문제를 완벽하게 털고 가기 위해 수술을 최종 결정했다.

/김여울 기자 wool@

# 광주FC ‘두 토끼’ 잡는다

### 19일 부천FC와 코리아컵 16강전...22일 대전 원정서 3연승 도전

연승에 성공한 광주FC가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첫 번째 토끼는 부천FC1995와의 코리아컵(FA컵) 16강전이다.

광주는 지난 15일 김천상무와의 K리그1 17라운드 경기에서 박태준과 엄지성의 골로 2-0 승리를 거뒀다. 1라운드 FC서울과의 개막전 이후 첫 클린시트를 장식하면서 연승에 성공한 광주는 22일 오

후 7시 대전하나시티즌과의 원정을 통해 3연승에 도전한다.

광주는 리그 일정에 앞서 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국내 성인 축구 최강팀을 가리는 코리아컵 일정을 소화한다.

지난 시즌 K리그1 3위에 오른 광주는 시드 배정을 받아 19일 오후 7시 부천종합운동장에서 부천을

상대로 16강전부터 일정을 시작한다.

부천은 현재 5승 6무 4패(승점 21)의 전적으로 K리그2 8위에 자리하고 있다. 코리아컵에서는 지난 4월 19일 FC목포전 2-1 승리를 거두고 16강에 올랐다.

그라운드 안팎에서 호재가 겹친 광주는 분위기를 살려 8강 티켓을 노린다.

광주는 김천상무전 2-0 승리로 6위로 올라섰고, 지난 16일에는 기분 좋은 승리와 함께 팬들과 오픈 트레이닝 데이를 열었다.



리그 연승으로 분위기를 살린 광주FC가 19일 부천FC와의 원정경기를 통해 코리아컵 16강전을 치른다. 사진은 지난 15일 김천상무전에서 가브리엘이 헤더를 시도하는 모습. <광주FC 제공>

천연 잔디 구장 2면으로 구성된 광주축구센터가 재단장을 하고 다시 문을 열면서 선수들은 최적의 환경에서 훈련을 하며 두 마리 토끼 사냥 준비를 했다.

눈길은 이정호 감독에게 쏠린다.

코리아컵은 물론 리그 순위 싸움도 놓칠 수 없는 만큼 이정호 감독이 가동할 로테이션이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이영민 감독이 지휘하는 부천은 리그 8위에 머물고 있지만 앞선 전남드래곤즈전 1-1 무승부 등 최근 5경기에서 ‘무패’다.

외국인 공격수 루페타와 바사니가 부천의 주요 전력이다.

전남전에서 골을 넣은 루페타가 5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바사니도 3골 3도움을 만들었다.

하지만 K리그2에서 치열한 중위권 싸움이 전개되고 있어 베스트 멤버들이 얼마나 가동될지는 미지수다.

부천은 오는 23일 오후 7시 승점 차 없이 9위에 자리하고 있는 충북청주와 리그 맞대결을 갖는다.

현재 5위 부산아이파크에서부터 9위 충북청주는 ‘승점 21’로 치열한 순위 싸움을 하고 있다.

코리아컵 일정을 앞둔 광주는 구단 첫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무대도 올라야 한다.

‘우승’이라는 키워드를 안고 2024시즌을 연 이정호 감독에게는 효율적인 전력 운영이 중요한 숙제가 될 전망이다.

광주는 2년 전 FA컵 16강전에서 부천에 막혔다. 이번 원정길에서 패배를 설욕하고 연승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FC 김경민·허율·엄지성 17R ‘베스트11’

광주FC의 무실점 승리를 합작한 김경민, 허율, 엄지성이 17라운드 베스트11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8일 하나은행 K리그1 2024 K리그1 17라운드 경기를 평가해 베스트11 명단을 발표했다. 광주에서는 ‘수문장’ 김경민, 센터백으로 변신한 허율 그리고 뺨기골을 장식한 엄지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경민 허율 엄지성

광주는 지난 15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김천상무와의 홈경기에서 후반 30분 터진 박태준의 헤더와 후반 43분 기록된 엄지성의 오른발 슈팅으로 2-0 승리를 거뒀다.

포 상대 퇴장으로 수적 우위를 점한 광주는 상대 공격을 완벽하게 봉쇄하면서 ‘클린시트’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FC서울과의 개막전 이후 처음 기록된 무실점 경기다.

김경민은 경기 종료 직전 나온 김천상무 최기운의 위력적인 슈팅을 막아내는 등 골대를 지키면서 베스트11이 됐다. ‘장신 공격수’에서 센터백으로 변신해 무실점 승리를 도운 허율 그리고 골 불운에서 벗어나 2호골을 장식한 엄지성도 베스트11에 포함됐다.

17라운드 MVP는 강원FC 이상현이 차지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상현은 15일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펼쳐진 수원FC의 홈경기에서 멀티 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3-1 승리의 주역이 됐다.

후반 10분 야고의 결승골을 도운 이상현은 후반 20분에는 ‘슈퍼투키’ 양민혁의 추가골에도 관여했다. 이상현은 이날 2개의 도움을 추가하면서 8골 2도움, 두 자릿수 공격포인트도 이뤘다.

이상현의 활약으로 5연승을 내달린 강원은 베스트팀이 됐다.

16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현대와 인천유나이티드와의 경기는 베스트매치가 됐다. 이날 전북은 전반 8분과 후반 25분에 기록된 문선민의 골로 2-0 리드를 잡았지만, 후반 31분 인천 김도혁에게 추가골을 허용한 뒤 후반 45분에는 김성민에게 동점골을 내주면서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